

경기도의 모든 ART를 만나다!
전시콘텐츠 공유 플랫폼

www.klookart.org

경기록아트



2023

Vol.

11

GOGG
L A

특집	02
경기아트페스타	
컬럼	04
창작의 혼이 되어주는 파트너 예술가와 사랑	
특집_ 미술관 이야기	06
장욱진미술관	
컬럼	08
경기사 미술사 서양화가 이부강	
특집_ 미술계 동향	09
창작인예술활동지원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1	
특집_ 미술계 동향	10
창작인예술활동지원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2	
공모전 소식	11
학생 일반공모소식 경기지역 공모전 소식	
전시리뷰	13
서양화가 김학광	
경기미술소식	14
경기 지회지부 소식	
경기록아트 소개	16
아카이빙	

2023 GgAF



경기아트페스타

킨텍스에서 8일부터 열려, 회화·조형 등 작품 1800점 전시

▲ 경기미술협회가 6월8일부터 11일까지 KINTEX 제1전시장에서 '2023 경기아트페스타(ggaf)'를 개최한다.

/사진제공=경기미술협회

경기미술협회 '2023 경기아트페스타'

한 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이하 경기미술협회)가 6월 8일부터 11일까지 KINTEX 제1전시장에서 '2023 경기아트페스타(ggaf)'를 개최한다.

아트페어의 변화와 융합을 주제로 하는 이번 경기아트페스타는 120개의 부스와 5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회화, 조형, 사진 등 작품 1800점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내 작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국내 유명작가의 작품도 함께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의 틀을 깨고 가구박람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미술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아트페스타

새로운 가구 행복한 가족 "2023고양가구박람회"와 함께하는 미술작품에 아름다운 콜라보 2023경기아트페스타 개막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견작가 초대기획전'을 비롯해 연예 활동과 작품 활동을 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아티스트 작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청년 작가들로 구성된 '신진작가 특별전'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작품 관람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어 보다 특별한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운희 경기미술협회 대회 조직위원장은 “이번에 열리는 2023 경기아트페스타는 '고양가구박람회'와 공조해 획기적인 아트페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며 “쇼핑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융·복합형 전시로 기존 전시회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영운 기획·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장에 관람객이 없는 전시가 제일 가슴이 아팠다” 며 “미술은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며, 고양가구박람회에 오는 많은 관람객이 경기아트페스타에서 많은 작품을 보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행사기간 중 시작일인 6월 8일부터 6월11일까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트페스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아트페스타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침체되어 있는 미술시장의 신시장을 개척과 미술,공예 등 아트페어의 작품판매에 단점을 극복하고 작품 판매에 물꼬를 트다."



전시명 : 2023경기아트페스타
 일시 : 2023.6.8-6.11
 장소 : 일산킨텍스 1,2홀

참여작가, 관람객은 사전등록 필수
 (입장료무료)

<https://goyanggagufair.com/regist>



창작의 혼이 되어주는 파트너

예술가와 사랑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의 사랑의 찬가(L'Hymne A L'amour / 1950)를 듣게 되면 곡 전체에 흐르는 간절함이 가슴속 깊이 스며든다. 그렇듯 그 곡의 탄생은 사랑하는 연인의 공연을 보러 가던 마르셀 세르당이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게 된 후 가장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야 했던 에디트 피아프의 진심이 담겨진 창작물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채워주는 또 하나의 공간은 사랑하는 연인이었으며 그 연인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외로운 영혼의 안식처이기도 했다.

화가에게 사랑하는 여인이라 그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뮤즈(muse)이 있을 것이다. 시대를 불문하고 화가들의 고단한 삶속에 기꺼이 함께 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화가는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또 어떤 화가의 이야기는 지독하게 모질기만 한 사랑을 하기도 했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늘 가난에 허덕이며 힘겹게 살아가는 불운한 화가였다. 그러나 미술사(美術史)상 최고의 미남화가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세련된 매너까지 갖추고 있던 이탈리아 출신 모딜리아니는 당시 파리 화단에서 최고의 인기남으로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모딜리아니는 그에 상응하는 화려한 여성 편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1917년 여름 러시아 조각가 차나 올로프(Chana Orloff)의 소개로 일본인 화가 츠구하루 후지타(Tsuguharu Foujita)의 모델이었던 19살의 수줍은 소녀 잔느 에뷰테른(Jeanne Hebuterne)을 만나게 된 모딜리아니는 첫 눈에 그녀에게 반하게 되고 잔느 또한 모딜리아니를 평생의 사랑이라 생각하며 둘은 함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당시 모딜리아니에게 놓여진 환경과 여건은 이들의 사랑이 순탄 할 수 없음을 예고했을 것이다. 특히 진솔한 카톨릭 신자로 상당히 보수적이고 브루주아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잔느의 부모님은 19세의 어린 딸을 34세의 나이 많고 가난하며 인정받지 못하



잔느 에뷰테른



모딜리아니와 잔느의 묘

는 유태인게 모딜리아니를 딸의 반려자로 인정 해주지 않았고 그 완고함에 두 연인은 힘겨운 인연을 이어 가야만 했다. 이를 무릅쓴 에뷰테른은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이듬해에 첫딸을 낳으며 3년간의 짧은 불같은 사랑을 한다.

알콜중독과 방탕한 생활로 에뷰테른을 힘들게 했던 모딜리아니의 건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져 결국 1920년 1월 24일 36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잔느만을 남겨둔 채 사망한다. 그에 크게 절망한 잔느는 당시 두째 아이를 가지고 만삭인 상태에서 모딜리아니의 사망후 불과 이틀 뒤 "천국에서도 당신의 아내가 되어드릴게요"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하여 모딜리아니의 곁으로 가고 만다.

살아생전 모딜리아니는 입버릇처럼 잔느에게 "죽어서도 나의 모델이 되어주겠소?" 라고 했었는데 결국 잔느는 그와의 약속을 그토록 극단적이며 비극적으로 지키게 된 것이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선택을 비난하고 적대적이었지만 10여년 후 1930년이 되어서야 에뷰테른의 묘를 모딜리아니와 함께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평생을 병과 싸우며 힘겹고 가난하게 살았던 모딜리아니는 죽고 난 후에야 화단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미술시장에서 그의 작품을 찾는 수집가들이 생겨나며 그의 작품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몇몇 미술 학자들은 "잔느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없었더라면 모딜리아니는 끝내 주목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과연 잔느는 모딜리아니를 진정한 세계적 예술가로 이끌어 주는 뮤즈(muse)로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카와 캄보디아의 미술 표현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그 양식화는 그가 북부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많이 접했던 중세의 조각에서 얻은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 종족 마스크에 대한 특징이 그가 그린 초상화에서 보인다. 조각과 회화작품 모두에서 모델의 얼굴은 아몬드 같은 독특한 눈, 자그맣게 꼭 오므린 입, 왜곡된 코 그리고 길게 늘어진 목으로 아프리카 원주민의 목각작품을 연상케 표현되고 있다.

잔느와의 사랑이야기는 영화, 책,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세간의 큰 관심을 받은 만큼 전설이 되어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던 영화 "모딜리아니"에서는 자신이 그려진 그림을 본 잔느가 "왜 눈동자는 그리지 않았어?" 라고 묻자 "내가 너의 영혼을 알게 되면 눈동자를 그리게 될 거야"라는 로맨틱한 모딜리아니의 대사가 나오기도 한다. 1919년 그린 잔느의 초상이 2006년 런던의 소더비 경매에서 뉴욕의 한 수집가에게 1,640만 파운드에 거래 되는등 사후 화려하게만 보였던 화가 모딜리아니도 에디트 피아프 이상의 지독한 사랑에 혹독한 흥역을 치렀던 가슴시린 사랑을 경험했다.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영원한 사랑을 얻은 모딜리아니 자신만큼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독한 사랑이 아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랑을 한 화가이었을 것으로 후평을 해 본다. 비극적인 사랑을 했던 그들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화가. 1884년 7월12일 리보르노(이탈리아)생.

1920년 1월 24일 파리에서 죽다.

이제 바로 영광을 차지하려는 순간에 죽음이 그를 데려가다”

“잔느 에뷰테른느. 1899년 4월 6일생. 1920년 1월 25일 파리에서 죽다.

모든 것을 모딜리아니에게 바친 극단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던 헌신적인 반려자”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는 중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친숙했던 가늘고 긴 목과 눈동자가 없는 초상화 그림의 작가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이다.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 대부분 잔느 에뷰테른이며 그녀를 만나고 모딜리아니가 죽기 전 불과 3년간 16점의 잔느 초상을 그렸다. 독특한 자신만의 화풍속에 탁월한 텍스처를 기본으로 하는 리드미컬하고 힘찬 선과 미묘한 색조와 중후한 마티에르로 폴세잔, 야수파, 입체파의 영향과 함께 아프리카 미술 등 다양한 미술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화가 모딜리아니. 특히 모딜리아니의 조각작품은 그가 미술관에서 접했던 아프리

에디트 피아프는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마르셀 세르당에게 “당신은 비행기를 타고올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며 사랑하는 연인을 조금 더 일찍 보고자 자신의 공연장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했던 자신의 전화 한통화가 마르셀 세르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자책감에 평생의 명예가 되어 그 유명한 “사랑의 찬가(L'Hymne A L'amour)” 를 직접 만들어 불렀으며 당시 대대적인 공전의 히트와 함께 그 곡은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에서 감흥을 전해주고 있다. 예술가들이 창작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사고(思考)나 욕심을 가지기보단 그가 겪은 내면 깊숙한 진정함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이기에 그러한 감흥이 질게 배어나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세계적인 수작이 탄생되었을 것이다.

우리 화단에서 요즘 소위 유행하고 있는 장식성 짙은 그림들과 그에 발 빠르게 분위기를 추켜세우는 화랑과 각종 아트페어를 볼 때 창작인들과 주변의 모든 시스템에 종사 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진정성 있는 작품이 전시되는 미술시장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가슴시린 그들의 사랑을 경험해보길 바라본다.

참고문헌 - 그림보다 아름다운 사랑 '화가의 연인들'
이미지출처 - 구글이미지



[Jacques와 BertheLipchitz의 초상] 1916



[앉아 있는 누드] 1918



[루니아 체콥스카] 1918

장욱진 초상드로잉 (김정화백 기증작품집)

“나는 심플하다”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은 자연을 닮은 화가 “장욱진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의 해”에 즈음하여 김정화백이 기증한 “장욱진 초상드로잉”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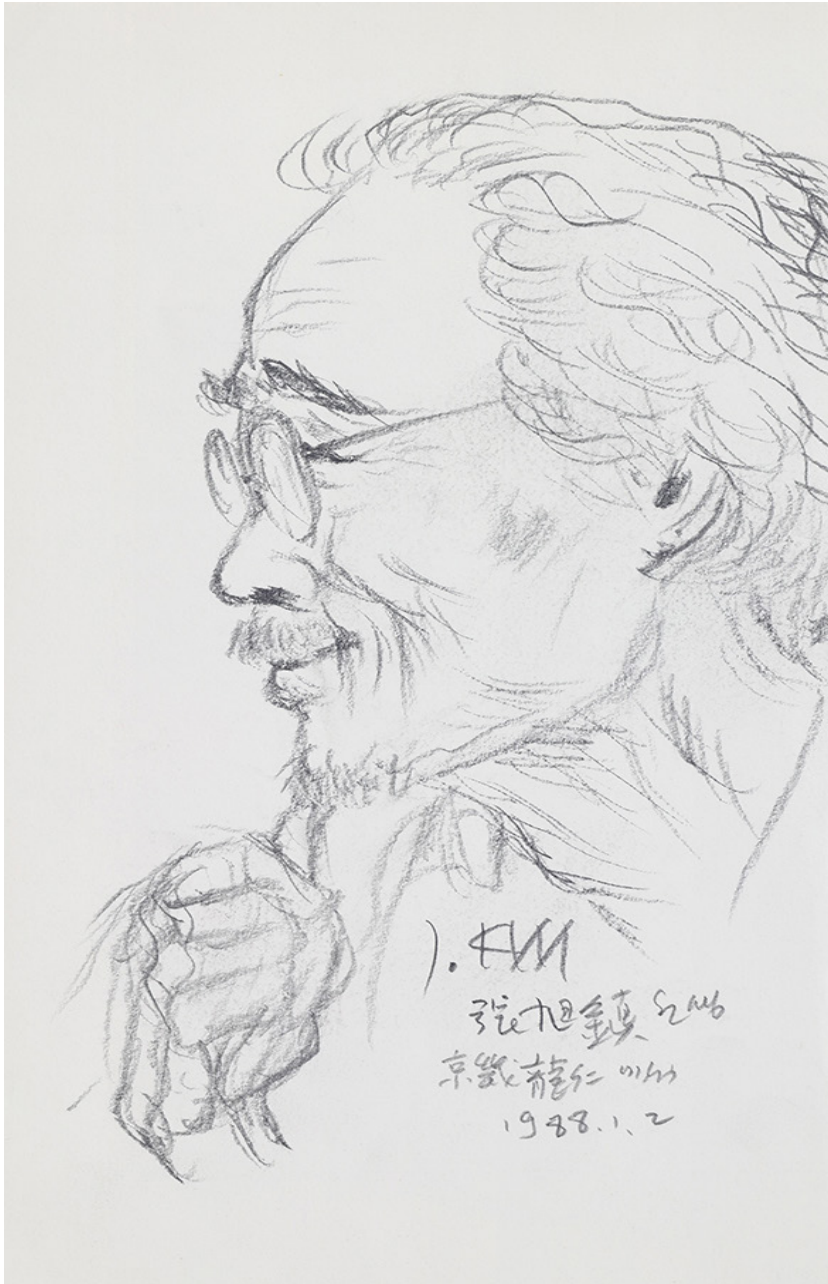
김정화백은 장욱진 화백과의 30년의 깊은 만남 가운데 25년 간 관찰한 장욱진 화백의 모습을 드로잉 화폭에 담았다. 그를 바탕으로 발간된 “장욱진 초상드로잉” 집은 단순한 작품집의 의미를 넘어 장욱진 화백의 시대별 표정과 모습, ‘앙가쥬망’ 동인들의 스케치 여행 등 그가 머물렀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다양하고 꾸밈없는 진솔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김정화백은 장욱진 화백과 함께하며 틈틈이 드로잉 하고 소중히 간직 해왔던 64점의 드로잉작품 모두를 조건 없이 흔쾌히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에 기증하였다.

김정화백은 아리랑과 반평생을 함께한 작가로 50여 년 동안 일관성 있는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한국 미술계의 원로 작가이다. 개인전 국내외 24회, 단체전 180여회를 통해 한국적인 색채와 한국인의 정서를 화폭에 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아리랑”이 2012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기념으로 2013년 5월 미국 워싱턴시 주미한국문화원에서는 “김정-워싱턴아리랑” 초대기획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김정 화백은 화가이자 교육연구가로 미술관련 국제규격등재 학술지 논문발표 27편과 12종의 연구 저서를 발간하는 등 실기와 이론분야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작가이다. 김정화백과의 평소 대화중에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 소재는 장욱진화백 관련 이야기로, 김정화백의 미술인생에서 아리랑과 더불어 귀중(貴重)한 부분이 바로 스승 장욱진 화백과 30년간의 동행이며 스승에 대한 가득한 존경과 애정이 진솔하게 느껴진다.

초상드로잉 장욱진

“나는 심플하다”

단순함의 미학 장욱진 화백이 되풀이하여 내세우던 철학이다. 장욱진 화백이 생전 반복하여 내세웠던 말인 만큼 장욱진 화백의 그림에선 가족, 나무, 아이, 새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이 심플하게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된다. 또한 외모가 아닌 정신생활에서의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였으며 그런 면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스스로 멋멋함을 자부하는 삶을 산 작가이다. 심플하면서 멋멋함을 한평생의 작업관과 생활의 가치로 삼았던 장욱진 화백의 삶과 작업 세계를 기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시작으로 1997년 8월 18일 이순경여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한옥고택과 2층 양옥 등 가옥 유산과 저작권을 기본 재산으로 재단법인 장욱진미술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은 고 장욱진 화백의 미술세계를 기리고 그의 작품세계를 연구, 전시하며 작품집발간 및 그에 따른 기념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장욱진 미술문화재단에 속한 장욱진 가옥은 2008년 9월 17일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 404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른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은 장욱진화백이 1986년부터 1990년 타계할 때 까지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던 집이다. 한옥 후면에 있는 2층 양옥은 장욱진화백이 직접 설계하여 짓고 말년에 기거 하였다. 장욱진의 그림에도 더러 나타나는 이 양옥은 현재 재단의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다.

이어 2014년 4월 28일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이 개관하였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은 2010년 4월 장욱진미술문화재단과 양주시의 작품기증 관련 협약을 통해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과 함께 한 장욱진 화백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한국 현대 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술작품과 자료를 전시, 연구, 교육하는 목적으로 개관하였다. 미술관의 건물은 장욱진화백의 호작도와 집의 개념을 모티브로 ‘최-페레이라’ 건축에서 설계 하였으며 중정과 각각의 방들로 구성된 독특한 설계의 미술관으로 “2014년 김수근 건축상” 과 영국 BBC “2014 위대한 8대 신설미술관” 으로 선정 되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에서는 전시실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와 행사 교육 공공프로젝트 미술창작 스튜디오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의 면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장욱진 미술관의 기획으로 장욱진화백의 숨결을 잇는 “장욱진의 숨결:시대를 품은 예술가들” 전시 중 한편에는 특별한 드로잉 소품이 디스플레이 되어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그 드로잉 작품은 25년이라는 세월동안 김정 화백이 장욱진 화백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려온 드로잉 64점 중 일부 복사본이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함께 공개되지 않은 드로잉작품에 대한 아쉬움이 큰 가운데 전시는 마무리 되었다. 이를 계기로 김정은화백은 장욱진 화백의 모습을 담은 드로잉작품을 모두 공개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감상하고 장욱진화백을 이해하고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에 64점 모두를 기증하게 되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은 소중한 드로잉 작품을 2017년 장욱진 화백 탄생 100주년에 기념하여 작품집으로 출간하였다. 수십 년간 한 화가의 일상이 또 다른 화가의 시선에서 표현되는 소중한 기록물로 남아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것이다. 드로잉집에는 평소 장욱진 화백의 소탈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장욱진 화백의 시대별 거친 흔적과 다양한 표정, 몸짓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있다. 드로잉집의 페이지는 장수를 넘길수록 화가의 진솔한 삶의 모습에서 깊어지는 얼굴의 주름과 넓어지는 이마만큼이나 적어지는 머리술이 노(老)화백의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또한 드로잉작품마다 김정은화백은 쪽지 메모를 더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역사적 사료의 가치로써 소중한 가치를 더하고 있다.

“회색빛 저녁이 강가에 번진다. 뒷산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강바람이 나의 전신을 시원하게 씻어준다. 석양의 정적이 더 멀리 산기슭을 타고 내려와 수면을 쓰다듬기 시작한다. 저 멀리 노을이 지고 머지않아 달이 뜰 것이다. 나는 이런 시간의 쓸쓸함을 적막한 자연과 누릴 수 있게 마련해준 미지의 배려에 감사한다. 내일은 마음을 모아 그림을 그려야겠다. 무엇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고 장욱진화백-

장욱진 초상 드로잉집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오래된 영화필름의 한 컷 한 컷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장욱진 화백이 쪼그려 앉은 채 마른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를 톡 톡하며 “나는 심플하다” 고 실눈미소를 보내 주신다. 그의 숨결을 후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오작교 역할을 하신 김정 화백의 스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존경심이 기증작품 64점속에 감동으로 다가온다.

자료 및 사진 발췌 -----
장욱진 미술문화재단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학예실
장욱진초상드로잉(김정화백 기증작품집)
윤여진학예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글. 룩아트 편집부



“..... 장욱진선생만이 품어낸 천성적인 아름다운 휴머니즘인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을 작품에서 보여 주셨고 즐거운 일생을 마치 동화처럼 살다가 가신 것이다.”

- 김정 - 장욱진초상드로잉집(장욱진 小考)

경기인 미술인

기억의 원형과 표현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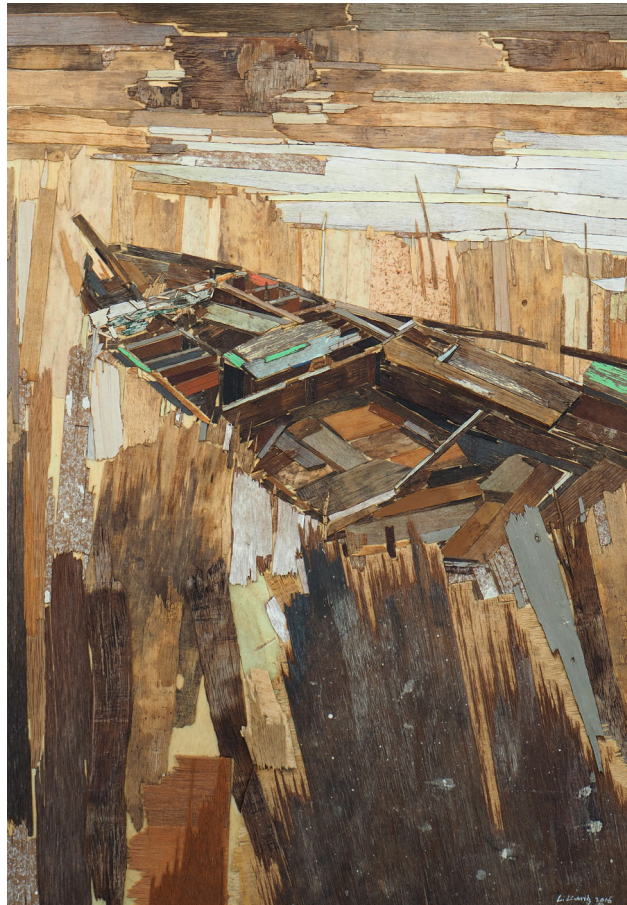
서양화가 이부강

글. 김재덕 미술컬럼니스트

서양화가 이부강은 경기도 여주생으로 고교시절 수원으로 이주하였으며, 5남매중 막내로,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등 13명의 대가족 과 생활하며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유대속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린시절을 보내며 성장했다. 평소 다양한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부친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되었다. 소년시절 시골로 부임해온 중학교 미술선생님의 소중한 만남이 있었으며 조각을 전공 하셨던 미술선생님의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 속에 소년 이부강은 화가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전업작가로 성장하여 실험적 작품을 다양하게 경험하던 서양화가 이부강의 작업중 2012년부터 본격화된 그의 새로운 흔적(痕跡, trace)시리즈는 정크아트(Junk Art)의 또 다른 신선한 표현의 세계를 감상 할 수 있게 한다. 공사 현장에서 역할을 다 하여 버려진 낡은 베니어합판을 한 꺼풀 얇게 벗겨내 껍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파편들을 새로이 조합함으로써 기억의 관념해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저 부조로 표현된 콜라주 화면위에 작가는 최소한의 채색과 다시 뜯어 내거나 샌딩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의 관념적 먼 기억에 대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의 작품에서 표면은 작가의 내적 감정을 머금은 상태로 발현된다. 즉 기억의 재구성 과 작업 과정의 반복되는 레이어(layer)의 중첩은 작가가 경험한 아스라한 '기억의 흔적'으로 나타난다. 페인트칠이 된 합판과 민 몸을 드러낸 합판, 작업장의 거친 풍파에 상처 입은 합판들이 우리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 하듯, 세월의 흐름에 따라 벗겨지고 퇴락해진 채 숨 쉬는 표피들만 벗겨내어 다시금 조화를 이루고 환생된 이데아(Idea) 즉 관념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작가 이부강의 흔적(痕跡, trace)은 먼 기억 속에서 부



터 출발한다.

우리들이 성장하며 뛰었을법한 정감있는 동네와 어깨가 닿을듯한 골목골목들. 여기저기 많은 물건들이 정돈되지 못한채 놓여 있으나 제각기 제역할을 다했던 무 규칙의 풍경들. 그것은 도시의 번두리 풍경이거나 실내의 모습들로 우리의 기억속에 잠재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작가의 눈에 들어온 정감 있지만 정리 되지못한 모습의 도시 번두리 풍경은 개발이 멈춘 낙후된 공간으로, 동시에 우리의 기억에서부터 시간이 멈춘 공간이기도 하다. 낡은 합판 파편들의 다양한 모양새, 즉 굽기와 거칠기 등 형(形)과 제각각의 질감들은 유연하지는 못하지만 저마다 제 각을 유지한채 화면위에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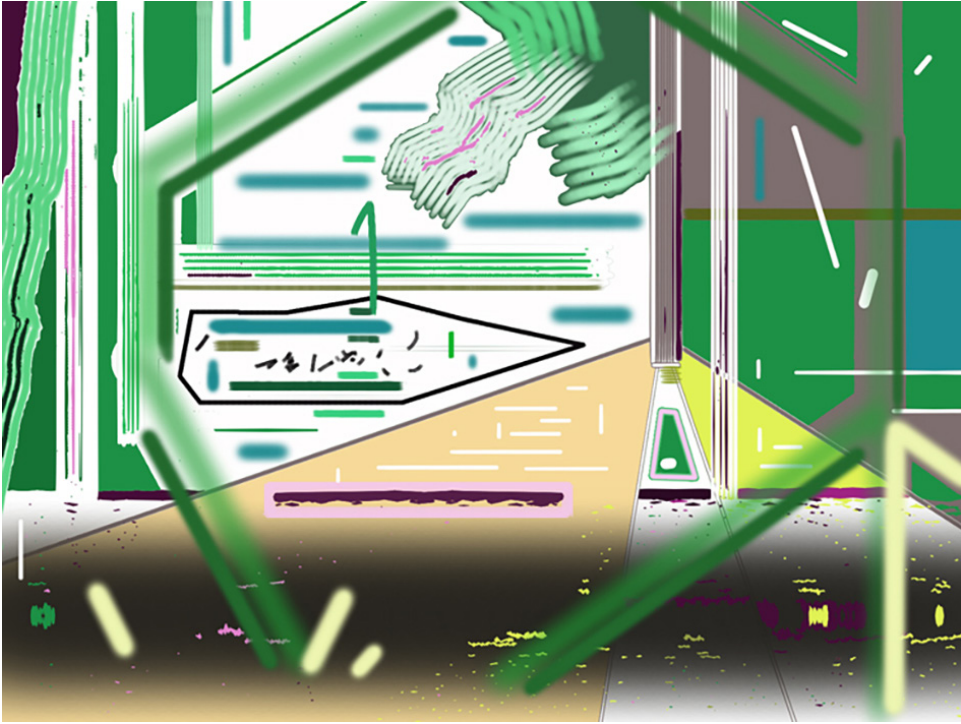
어 깎아지고 덧붙여지는 과정과 퇴색된 색들의 조합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과 그 기억의 관념을 이끌어 내준다. 화면은 때에 따라 구상과 추상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데아(Idea)를 형상화 하여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수많은 합판 조각들의 조합으로 이루어낸 화면에 다시 색을 입히고 벗겨내는 과정들을 작가가 원하는 기억을 찾고 조형미 가득한 이미지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힘들고 고된 작업과정을 이겨 내고 있다.

값비싼 노동 현장에서 버려진 오브제는 작가에게 그에 상응한 현장성과 노동의 댓가를 요구한다. 그의 작업실은 실로 건축현장의 모습 그자체로 보인다. 여기저기 쌓여 있는 건축자재와 거친 자재를 순화시켜 미술작품의 오브제(objet)화 해줄 다양한 공구들은 어느 화가의 작업실의 느낌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노동현장성 넘치는 작업실에서 작가의 작업과정은 장인의 기술에 견줄만한 세밀함과 정성이 요구되며 그러한 정성으로 작가의 먼 기억들이 흔적으로 하나하나 나타내어진다. 물론 작가 이부강은 사물과 대상에 대한 기억 그대로의 단순한 구상표현만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기억하고자 얻어낸 화면 구성의 이미지로부터 수많은 합판표피 조각들이 심미감을 조화롭게 이루어 내야 하는 만큼, 장인 정신에 견줄만한 작업 과정의 집중은 오롯이 작가의 희생을 요구 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재현적 표현을 위해서라도 베니어판의 파편들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거나 빛바랜 합판조각들의 물성대로 제자리를 찾게 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들은 의도된 계산과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흔적(痕跡, trace)의 결과물로 가시화 된다. 작가 이부강의 기억의 파편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을때 까지 창작에 투여하는 인고의 시간은 그만큼 더 크게 요구 될 수 밖에 없다. 꼼꼼한 화면 구성과 붙이고, 더러는 떼어내고 벗겨 내는 노동력 짙은 공정이 필수적인 그의 작업은 한국화의 절제된 여백의 미를 통한 메시지를 품기도 한다. 고된 노동력이 수반되고 하나의 과정 과정이 더디고 고된 작업임에도 작가 이부강은 묵묵히 이 작업과정에 수년 동안 순응하는 작업을 감내 하고 있다.



창작인 예술활동 지원 (intermittent)과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지역문화재단과 예술단체 및 예술가 간의 발전방향



김지혜_leaky home #10_Digital Printing_57.5x28.5_2019

예 술가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에든 생계 걱정 없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제도 앵테르미탕 (intermittent)이 있다. 이는 ‘공백기, 불규칙’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창작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 복지제도를 말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작은 1958년 프랑스 드골 정부시기에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국가상공업협회 (Assedic)가 창설되면서 실업수당이 본격화 되었고 1969년부터는 영화·공연·방송 분야의 비정기적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다. 프랑스의 예술가들은 매달 버는 돈을 정부에 신고하고 그중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불한다. 정부는 예술가들이 신고한 액수를 바탕으로 기준 소득을 산출하고 예술가가 휴지기등 소득이 없는 기간 그 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주게 된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불규칙한 수입구조에도 기본생활비 걱정 없이 다음 작품구상을 하는 등 창작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도 현재 약 14만명 정도의 예술인이 이 혜택 속에서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창작 예술인이 일정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험료로 내고 수입이 없는 시기가 도래하면 한 달에 약 2,000유로(한화 약 250만원) 가량을 실업급여 형식의 기초 생계유지 비용으로 지원을 받는 형식이다. 이미 50여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예술가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 공연, 영화 등을 행하는 과정 즉 창작의 과정을 생산 활동으로 인정하고 불규칙한 소득구조 속에 일시적 또는 장기간 소득이 단절되어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고자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안정된 창작활동을 돕는 문화예술 복지정책을 펼쳐 온 것이다. 그런 사회적 복지의 영향으로 유럽의 창작예술인들은 안정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문화예술 선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사회전체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예술가들을 직업인으로 보호 받게 해주며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작업공간을 지원 받는 등 기초생활의 보장이 안정된 창작활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은 2011년 공포되어 발전되고 있다. 2011년 단편 영화 <걱정 소나타>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으나 불운의 생을 마감한 고 최고은(32세)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창작인들의 어려운 생활상이 화두가 되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단 최고은 작가만이 아니라도 우리의 주변에서도 힘든 현실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근 현대미술을 이끌어온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신상을 돌보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어 가거나 건강악화로 아쉽게 생을 마감한 사례가 당연시 미술사를 장식하곤 했다. 국민화가 박수근의 실명위기사속의 고난한 창작활동과 이중섭의 영양실조로 인한 생의 마감은 안타까운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제도의 부재를 실감케 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입법, 행정부서의 관심 속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복잡한 정치계의 수많은 현안 속에 묻혀있어 예술인들은 언제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 아직 예술인복지의 포근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미술협회에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의 확대를 이루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제도와 법령의 시행제정을 위해 세미나를 주최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과정 끝에 예술인들의 고용보험법 개정에 합의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는 했다. 우리정부와 국회에서 최고은법 이후 뭔가 움직임의 필요성을 가지고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막상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느끼기에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려 모두의 한숨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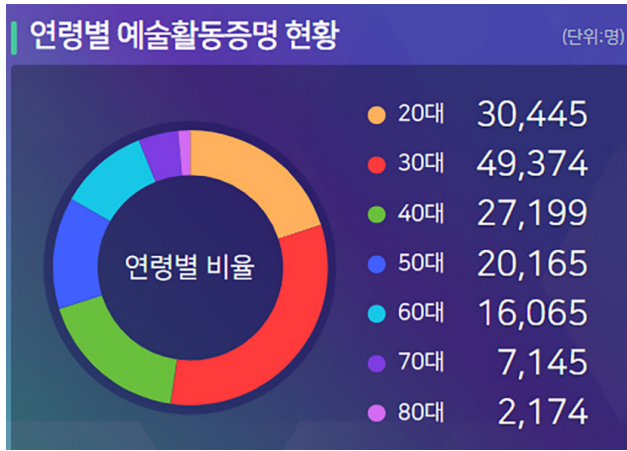
전국의 문화 예술인을 위해 가장 인접한 현장에서 연구, 노력하는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의 작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년 중 각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제 각각 단독으로, 또는 중앙부처의 연결고리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기획과 공모사업 등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년 중 많은 인원이 수용되지는 않지만 개인초대전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의 작가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다. 각 지역의 문화재단의 미술전시 기획과 작가 공모 등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분명 지역 작가에게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며 경제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 각 시도마다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수많은 예산을 그 기관의 유지를 위해 소모하고 있다. 그에 소속된 행정가들은 행정 주도적 절차로 소수의 문화예술 복지 수혜자를 선택한다. 예산은 적는데 수혜대상자는 넘쳐나고 있다. 각 지역의 문화재단의 방대한 유지비는 당연히 소모되고 복지 예산은 적어서 매년 소수의 수혜자를 경쟁적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문화예술 복지수혜자를 선택하는 행태가 우리의 문화예술복지의 현주소이다. 각 지역 문화재단의 긍정적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문화재단을 통한 예술인들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론화 하고자 한다.



이중섭기념관 인물부조

창작인 예술활동 지원 (intermittent)과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지역문화재단과 예술단체 및 예술가 간의 발전방향 2



최근 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의 제안에서부터 사업비의 정산까지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관리 하고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e-나라도움시스템을 구축하여 2~3년간 시험 운영을 하였고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가는 모습이다. 문화재단을 통한 공모사업과 관리전산 시스템을 전수 받는 대부분의 창작인 들은 이 시스템의 운영부분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로그인 단계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높은 벽을 느끼게 된다. 국가 문화예술위원회도 그러한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수년 동안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전담 콜센터운영과 시스템의 개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초기에 비해 다소 몇 가지 문제는 해결되었다. 앞으로 몇 년 뒤엔 더욱 편리해져 지금처럼 전산입력의 어려움으로 그나마 얻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복지혜택을 포기하는 창작인의 수가 적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 본다. 그 어려움 속에 전국의 문화재단이 작가들에게 행정지원과 일정부분의 교육도 담당해 주며 행정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 어려운 행정의 관문에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창작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예술인 복지지원을 이루기 위한 최선이 될 수 없다. 공모 경쟁을 통해 선별적 지원형태로는 창작예술인의 포괄적 지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지적 할 수밖에 없다. 전산시스템의 교육과 운영지원 행정서비스는 한국형 예술복지의 또 다른 이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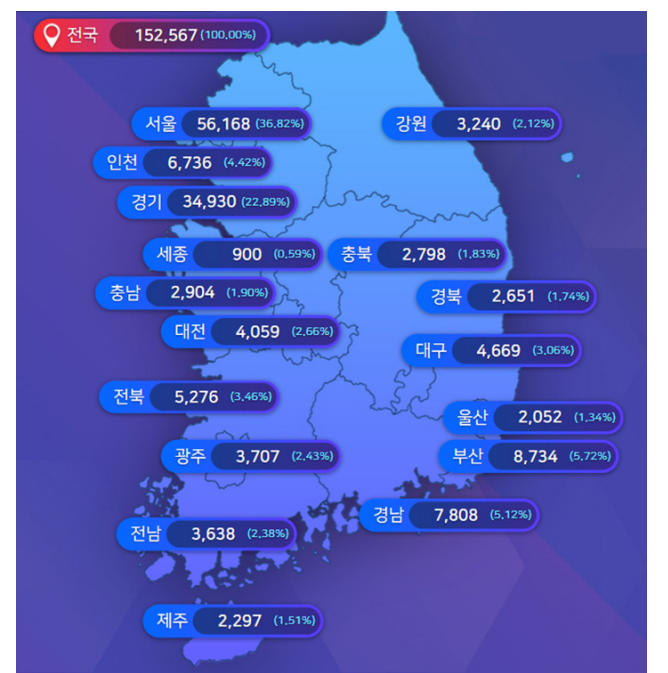
앞선 지적은, 전산시스템의 불편함보다는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모형 지원형태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각 지역의 문화재단의 체계로 영원히 정착될까 우려스럽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하거나 공모 형태로 창작인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정책임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론 우리나라 행정 정책가들의 탁상행정으로 정착될 수도 있다는 노파심이다. 각 시,도 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국가 문화예술 지원시스템과 문화예술 관련 부처별로 창작인 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행정가 주도의 현 상태는 진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환경 속의 창작인들 에겐 또 하나의 넘어야할 산일 수밖에 없다. 전문성과 행정인력의 부족은 당연히 작가들의 포트

폴리오를 통한 예술적 창작활동에 대한 평가 보다는 행정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평가서를 제시하고 그 칸을 다 채워 제출하게 한다. 창작인이 행정가등의 제도에 맞추어 평가를 받아야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평가의 큰 비중은 지난 성과를 우선한다. 경력과 지난 몇 년간의 성과로 행정공무원식 평가를 통과 하여야만 하는 모순된 공모형태의 지원이 큰 문제점이다. 창작의 시간을 쪼개어 문화예술 행정공무원이나 제안서를 텍스트로 전달 받은 심의 위원들의 관 주도형 통과 의례를 위해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여를 컴퓨터 앞에 매달려 공모신청서를 입력하고 그나마 운이 좋으면 약간의 일회성 창작지원금 혜택을 받으나 대부분의 지원 작가들은 또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국의 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과 복지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외에 자체 기획을 통한 간접지원의 형태가 있다. 이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작가를 우선하여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작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년간 불과 몇 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최소한의 기획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속적 관계설정이 될수 없는 구조가 아쉬운 점이다. 바라 건데 기왕에 문화재단의 설립취지가 창작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방향 설정이 이루어 져야 할 곳이다. 몇몇 문화재단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중 공모사업의 형태보다 우려스러운 또 하나의 의구심은 전문예술인의 복지환경이 수립되려면 아직 멀기만 한데 생활예술분야에 상당히 공을 들이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분야가 함께 공존해야 문화선진국의 완전체가 되는 것은 이치에 맞는 다 하지만 모든 문화 선진국들은 전문예술인의 복지가 완성된 후 생활예술지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점에서 전문예술인의 복지정책도 미미한데 너무 선부르게 생활예술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전국의 문화재단을 통해 분배하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올바른 문화예술 복지를 이루기 위해선 각 문화재단들이 기초 문화예술복지의 확립을 위하여 예산의 안배와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형 '앵테르미탕(intermittent)' 이 있었다면 최고은 작가는 최소한 아사(餓死)라는 어처구니없는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프랑스는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나라' 라는 수식어로 우리나라 창작인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르네상스라는 유럽문화의 태동기를 거치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소득이 많은 창작인이 나누고, 소득이 적은 창작인이 혜택을 받게 하는 나눔의 '복지제도' 가 있

기에 가능한 수식어로 정착 되었을 것이다. 프랑스가 문화예술 최 선진국으로 독보적인 존재가치를 이어오고 있는 점에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알고 국가적 원동력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 함께 문화예술인과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이루기 위한 창작인과 온 국민이 문화예술 향유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지원 제도가 풍부한 점에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계 발전의 공익적 목표와 그 권위가 앞으로도 지속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 지원에 따른 정책적 수립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기반으로 전국의 일선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산업의 고용 및 기초생계지원 복지 문제를 근접거리에서 관찰, 연구해 주고 한국형 문화예술인 복지제도를 통해 차츰 개선됨으로써 앞으로 세계 속에 대표할 한류문화예술인이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배출되기 소망해 본다.



참고자료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한국예술인총연합회. 2020.3.18.
 코로나19, 예술지원의 성찰과 방향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4
 앵테르미탕(intermittent).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636555&member>
 예술인 복지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11329&cid=43667&categoryId=43667>

미술꿈나무들의 등용문 2023 학생미술공모전 소식

제49회 관악학생 미술실기대회

안양 시민과 함께하는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

시 민 과 함 께 하 는 안양 미술 협 회

일시 2023. 05. 06.(토) 10시부터-

장소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서예: 김중업박물관교육관

시상식 2023. 05. 20.(토) 15:00

전시안내 2023. 05. 20. ~ 05. 22. 안양아트센터 미담갤러리

2023. 06. 01. ~ 안양예술공원 야외전시

(사)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2023 제5회 행주학생 미술·서예대전

주 제 자유형식의 그림

참가자격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공모신청 회화 | 초등학생 8월, 중·고등학생 5월 도화지에 자유롭게 표현한 그림 제출

서예 | 전 학년 4월 화선지에 자유주제 및 자유서체 제출

참가비 무료

공모기간 2023년 4월24일(월) ~ 4월28일(금)

작품제출 한국미술협회 고양시부 주관발송 및 방문접수(우편발송은 접수미달할 소인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54-6

심사 2023년 5월 12일(금)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사발표 2023년 5월 15일(월)

시상일시 2023년 6월 6일(화) 4시

시상장소 고양국제박람회장 내(고양참치소 허름 여정)

상장배부 2023년 6월6일(화) ※우편발송 및 기간 외 배부안함

수상작전시 2023년 6월1일(화) ~ 6월 6일(화) 고양국제박람회장 내(고양참치소 허름 여정) ※특선이상 여자 및 유구/개인부담

문의처 (사)한국미술협회 고양시지부 T. 031-906-8643-4

시상내역	상명	발급기간	시상인원	시상내용
대상	리중현상	미중현제단	1명	상장 장학금 100만원
금상	지복희의현상	국희현상	4명	상장 기념품
은상	고영서 최정현	고영서최희	3명	상장 기념품
동상	한국예중 최정현	한국예중	2명	상장 기념품
	한국미집 이서현상	한국미집	3명	상장 기념품
특별상	기원현상	(주)기원제단	10명	상장 기념품
장려상	조인현상	청소년문화의대	30명	상장 기념품
특선	고영서최희상	고영서최희	비제상명	상장
특선	이은상	문화콘텐츠 허름	비제상명	상장

주최: (사)한국미술협회고양시부

주관: 한국미술협회

후원: (재)하정현예술문화재단

※상장발급처의 상황에 따라 상급 및 발행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행주산성 어반아트스케치대회

Let's Goyang 어반스케치展

곽윤환 김선옥 김주연 동명숙 박선애
박윤선 오숙희 오주의 오창환 유혜숙
이금옥 이춘재 이현표 정미영 정병희
정상례 조현애 조효숙 진연정 최명자
한연미 허진 홍명자

● 일시: 2023. 4. 30SUN ~ 5. 1MON
● 장소: 일산문화광장

주최 FACO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주관 (사)한국미술협회고양지부



제2회 행주산성 어반아트스케치대회 개최

고양특례시 주최로 예술인 전문가와 아마추어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주산성의 주요시설물과 풍경을 스케치로 담은 시민참여형 공공프로젝트 '제2회 행주산성 스케치대회'가 2023년 10월 중 행주산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학생부, 일반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다.

제40회 전국공모 경인미술대전

제40회 전국공모 경인미술대전

제40회 경인미술대전 시상식
2023. 4. 1(토) 11:00 복사골 갤러리

평면·입체부문 전시
2023. 4. 1(토) - 4. 4(화) 복사골 갤러리

서예·문인화부문 전시
2023. 4. 6(목) - 4. 19(수) 복사골 갤러리

경인미술_새로운 지평전 | 지면전시 | 미디어플랫폼전시
※유투브(부천미술협회)

초대합니다.

희망의 3월에 40회 경인미술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특별문화도시 부천시 승격 50주년의 뜻깊은 해로 더욱 특별한 공모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40년의 전통과 역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헌신과 희생으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찾아주셔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40회 경인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염 동 기**

부천미술협회는 1976년 설립된 부천지역 미술인들의 자조조직체로, 2017년 '경인미술'을 창간하여 지역 미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40회 전국공모 경인미술대전

시상식: 2023. 4. 1(토) 오전 11시

장소: 복사골 갤러리

평면·입체부문 전시

일시: 2023. 4. 1(토) ~ 4. 4(화)

장소: 복사골 갤러리

서예·문인화부문 전시

일시: 2023. 4. 6(목) ~ 4.19(수)

장소: 복사골 갤러리

경인미술_새로운 지평전

지면전시/미디어플랫폼전시 ※유투브부천미술협회

2023 고양국제현대미술제

제29회 행주미술 공예 디자인대전

2023.10.24 Tue - 10.27 Fri
시상식 10.27 Fri PM 4:00
고양국제박물관회장 제2전시실

1차 작품접수(인터뷰전) 2023년 8월 2일(수) - 8월 5일(토)

2차 작품접수(심사발표) 2023년 9월 15일(토) 11시~4시까지

3차 작품접수(최종심사) 2023년 9월 27일(수) 오후 4시~6시

시상내역

대상	1명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5명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0명	상금 50만 원
장려상	10명	상금 20만 원
특별상	10명	상금 10만 원
최우수작품상	1명	상금 50만 원
우수작품상	5명	상금 10만 원
장려작품상	10명	상금 5만 원
특별작품상	10명	상금 2만 원

유의사항

- 본 공모전은 미술분야의 진흥을 꾀하는 작품 국내외에 미발표된 작품 / 디자인은 공모전 관련자를 유대
- 역외에 유선, 직통, 팩스 사용 불가
- *오, 공적직에 관하여 기타 조항, 부속규정이 있는 작품은 접수불가
- 1차 제출작은 반환하지 않음 / 2차 제출작은 반환하지 않음
- 전시작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작품 파손의 경우 주최측이 책임지지 않음

제29회 행주서예 문인화대전

2023.10.24 Tue - 10.27 Fri
시상식 10.27 Fri PM 4:00
고양국제박물관회장 제2전시실

1차 작품접수(심사발표) 2023년 9월 15일(토) 11시~4시까지

2차 작품접수(최종심사) 2023년 9월 27일(수) 오후 4시~6시

시상내역

대상	1명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5명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0명	상금 50만 원
장려상	10명	상금 20만 원
특별상	10명	상금 10만 원
최우수작품상	1명	상금 50만 원
우수작품상	5명	상금 10만 원
장려작품상	10명	상금 5만 원
특별작품상	10명	상금 2만 원

유의사항

- 본 공모전은 미술분야의 진흥을 꾀하는 작품 국내외에 미발표된 작품 / 디자인은 공모전 관련자를 유대
- 역외에 유선, 직통, 팩스 사용 불가
- *오, 공적직에 관하여 기타 조항, 부속규정이 있는 작품은 접수불가
- 1차 제출작은 반환하지 않음 / 2차 제출작은 반환하지 않음
- 전시작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작품 파손의 경우 주최측이 책임지지 않음

제29회 행주미술공예디자인대전

1차접수: 8.2(수)~8.5(토)

심사발표: 8.18(금)

2차접수: 9.15(금) 11시~4시

심사발표: 9.27(수) 오후4시

제29회 행주서예문인화대전

접수일: 9. 1(금) 11시~4시

(미표구상태)

접수처: (사)한국미술협회 고양지부

심사발표: 9.15(금) 오후4시

문의: (사)한국미술협회 고양지부

Tel. 031.906.8643~4

유클리드기하의 조형미학



SOLO
EXHIBITION
BY
KIM HAK KWANG
2023

시양화가 김학광의 작업은 무형의 공간과 형상화 할 수 없는 인간의 사고를 넘는 동경의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창작의 과정에서 작가는 정제된 형태와 선의 연결 방식과 공간의 구성 등을 통해 수많은 레이어의 혼재를 연출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한다. 자기로부터 떠나지 못한 선과 단순화된 색과 패턴(pattern)화된 조형의 언어를 창작의 모티브(motive)로 삼는다.

비정형의 기하도형들은 아름답고 거친 일면을 두루 걸친 유형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대자연 속에 결합하고 이탈하는 기류와 상호 작용하는 자연의 순환과 우주의 법칙이 혼재한다. 작가는 혼재된 선들 속에 내재된 형상들을 주변의 것들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그려지는 것과 남겨지는 것의 긴장 관계를 통해 궁극의 모티브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지며 화면의 긴장을 야기하는 유클리드의 공리적 경험은 조형미로 이해하는 외부조건과 달리 무형의 공간에서 발현되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인간 내면에 형성된 자기만족이 표출되는 행동으로 확인되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다소 혼재되고 패턴화 된 표현 방식은 조형적으로 정제 되는 과정에서 모든 해석의 관점을 열어 놓는다.

작가의 선과 선의 연장에서 형상화 되는 기하도형의 겹으로 드러난 세계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수용 하지만 다양한 언어를 가진 공리적 규칙이다. 비유클리드기하의 이면의 언어 또한 서로 이반되는 모순 속에 순리적인 진리의 본체로 수용한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나와 자아의 인문적 세계의 시작이다. 작가가 시작하는 인문적 무형의 세계는 잠재된 무한한 우주의 공간으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 그 존재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갈구 한다. 인간이 곧, 자연의 일부로서 취하는 행동이 잠재된 세계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 시도는 과학적 사고이며 학문적 선택이다. 따라서 자기 세계의 확장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전면적인 방향 전환' 과는 무관한 자리에서 곧 도덕이 주체가 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뉘우침과 고침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는다. 여기서의 언급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메타노이아 곧 '신앙적 회개' 는 도덕의 차원을 넘는 영적 영역에서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내적, 외적의 성질이나 행동의 개선과 무관한 것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작가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이를 다 포괄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다 메타노이아의 핵심인 삶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이루는 과정을 깨달아야 하며 곧 인간 본위에서 하나님 본위로의 전환의 결과로 작가는 담론화하고자 의도 한다.

“규정할 수 없는 세계, 즉 창조 세계에 대한 동경이며 나의 존재를 비롯하여 일상의 경험, 기억 등과 지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한 존재와 관계 등의 근원적 질문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무형의 세계는 역설적으로 시각적 공간을 비롯한 인지의 공간, 사고의 공간 등 초월적이며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환경을 갖는다. 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존재와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선과, 선의 조각들을 사용하고 있다.”

-김학광 작업노트 中-



수원대학교 & 경기미술협회 업무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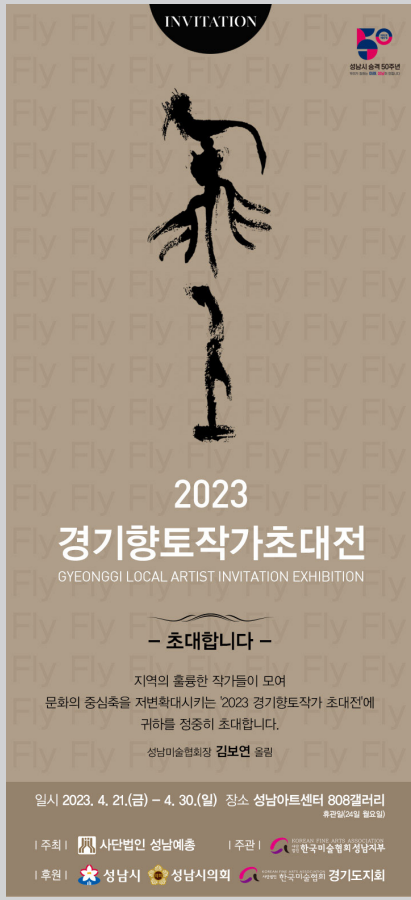


(사)경기미술협회 조운희 회장은 수원대학교 미술과 대학원과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미술협회 회원은 수원대학교 대학원 입학시 등록금 50% 감면혜택이 주어 진다.

2023 안성미협이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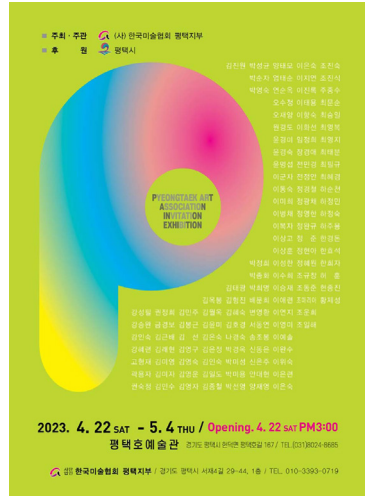
(사)한국미술협회 안성지부는 3월 8일(토) 제8대-9대 지부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경기향토작가 초대전

성남아트센터 808갤러리
2023. 4.21.(금)~ 4.30.(일)

주최: (사)성남예총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



2023 평택미술협회 정기전

일시: 2023. 4. 22.(토)~5. 4.(목)
오프닝: 2023. 4. 22.(토) 오후 3시
장소: 평택호예술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67)

주최,주관: (사)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
후원: 평택시

2023 군포미술협회 회원전 "수리산의 꿈전"

장소:군포예술회관전시실
일시: 2023. 4. 14~ 4. 23
2023 한국미술협회군포지부회원전



제25회 (사)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회원전

The 25th Korean fine art association of Dongducheon provincial branch Exhibition

전시기간: 2023년05월08일(월) ~ 05월12일(금)
초대일시: 2023년05월10일(수) 오후2시
전시장소: 동두천시민회관 전시실 (경기 동두천시 어수로4)
주최/주관: **성원 한국예총** 동두천지회 / **대한민국미술협회** 동두천지부
후원: **Do Dream** 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제25회 동두천지부 회원전

전시기간: 2023. 5. 8(우려)~5. 12(금)
초대일시: 2023. 5. 10(수) 오후 2시
전시장소: 동두천시민회관 전시실(동두천시 어수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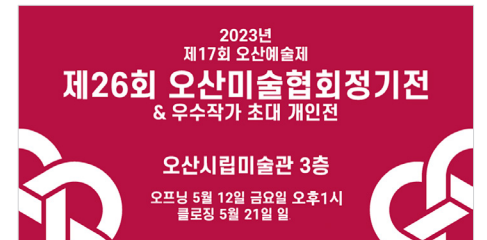
주최: (사)한국예총동두천지회
주관: (사)한국미술협회동두천지부



2023 제25회 하남미술협회전

일시: 2023. 4. 18(화)~4. 23(일)
오프닝: 2023. 4. 18(화) 오후 4시
장소: 하남문화예술회관 전시장 2층

주최: 하남예총
주관: (사)하남미술협회



제26회 오산미술협회 정기전 & 우수작가 초대 개인전

일시: 2023. 5. 12(금)~5. 21(일)
오프닝: 2023. 5.12(금) 오후 1시
장소: 오산시립미술관 3층

2023 경기미술협회 임원워크샵

일시: 2023. 2. 14(화)~2. 16(목)

2023 경기미술협회 임원워크샵을 제주도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개최 하였으며 경기미술협회와 제주미술협회가 함께 소통하는 "탐라도다"展을 진행하였다.





2023 안성미술협회 정기전
『미술의 향기』
Scent of Contemporary Art
2023. 5.26(금) - 6.3(토)
안성맞춤아트홀 전시실
Opening
2023. 5. 26(금) 오후 6시

ANSEONG FINE ARTS ASSOCIATION MEMBER ANNUAL EXHIBITION

초대합니다.
안성미술인들이 펼치는
2023 안성미술협회 정기전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커다란 영광이겠습니다.

2023. 5

(사)한국미술협회 안성시지부
회장 장경애 / 회원일동

2023 안성미술협회 정기전
『미술의 향기』

주관: (사)한국미술협회 안성지부
후원: 안성시, 한국예총안성지회, 코아텍(주), HS종합건설
일시: 2023년 5월 26일(금)~6월 3일(토)
오프닝: 2023년 5우려 26일(금) 오후 6시
장소: 안성맞춤아트홀 전시실



GG LA 전시 콘텐츠 공유 플랫폼
경기 LOOK-ART



제59회 경기미술문인화대전
사공화, 문인화, 현대문인화

2023 59th GYEONGGI ART CONTEST EXHIBITION
2023 제59회 경기미술문인화대전

전시기간 2023. 5. 31(수) ~ 6. 4(월)
시상식 2023. 6. 4(일) 오후 2시
전시장소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전관

주최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지회
주관 | 제59회 경기미술문인화대전 운영위원회
후원 | 경기도, 안성맞춤아트홀,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안산미술협회

제59회 경기미술문인화대전

전시기간: 2023. 5. 31(수)~6. 4(일)
시상식: 2023. 6. 4(일) 오후 2시
전시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관

주최: (사)한국미술협회경기지회
주관: 제59회 경기미술문인화대전 운영위원회
후원: 경기도,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안산미술협회



제31회 부천미술제
The 31th BUCHEON FINE ARTS FESTIVAL 2023
2023. 5.5(금)~5.10(수)
부천시청역 갤러리 (7호선 부천시청역사 내)

초대합니다
최고의 향연이 펼쳐지는 제31회 부천미술제에 초대합니다. 부천의 고수와 명망으로 가득한 다양한 미술가들로만 한 자리에는 모일 수 없습니다. 지금이 제31회 부천미술제에서 함께 행을 나누고 향연의 흥분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부천미술협회 회장 명 동 기

제31회 부천미술제

일시: 2023. 5. 5(금)~5. 10(수)
장소: 부천시청역 갤러리
(7호선 부천시청역사 내)



**창립20주년기념
가평미술협회전**

전시일시: 2023. 5. 3(수)~5. 9(화)
전시장소: 조형갤러리 1관

제33회 고양미술협회 회원전

제33회 고양미술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2023. 5. 2(화)~5. 9(화)
오프닝: 2023. 5. 2(화) 오후 4시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 1,2F



ZONE 7 YOUR IMAGINARY SPACE
2023 8.25~11.2
안양예술공원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일정: 2023. 8. 25.~ 11. 2
안양예술공원과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 '7구역 당신의 상상공간(ZONE 7 Your Imaginary Space)' 라는 주제 아래 24개국 48팀 80여 점의 작품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참여 작가와 누리집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문의. 031)687-0930

제48회 안양미술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2023. 4. 3(월)~4. 8(토)
오프닝: 2023. 4. 3(월) 오후 4시
장소: 평촌아트홀 1,2,3관



고양, 미래의 비전
고양특례시 지정 기념 기획전

2023 5.02(화) ~ 5.09(화)
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 (구)농림축산검역본부 1,2F



제48회 안양미술협회 회원전
초대합니다 INVITATION

전시기간: 2023. 4. 3(월)~8(토)
오프닝: 2023. 4. 3(월) 오후 4시
장소: 평촌아트홀(1,2,3관)

(사)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회원일동

제59회 경기미술문인화대전



(左)대상/이광현/고산선생시/국전지
(右)최우수상/이선정/김상옥시의 백자부/국전지



제59회 경기서예대전



(左)대상/서효녀/흔들리며 피는 꽃/국전지
(右)최우수상/한재철/연제나 푸른빛/국전지



제23회 춘기획전
“설레임 봄길”
The 23rd Spring Exhibition (Seolleim Spring Road)

제23회 춘기획전
“설레임 봄길”

구리미술협회의 주관으로
춘기획 설레임 봄길 전시가 개최 됨

제60회 김보연개인전

2023. 6. 3.(토)~ 6.30.(금)
갤러리뽀피레영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사지막길 58)



바람결/자작나무 숲 5_120x12,00cm 아크릴 유화/광목 2023

사)경기미술협회가 발행하는 미술전문 계간지
<경기룩아트_GGLA>지
무료구독 안내

1년에 4회, 우편요금 10,000원을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이름, 소속지부, 연락처, 주소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 입금계좌
 농협 301-0310-219521
 예금주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신청이메일 & 연락처
 E-mail: artkk4@daum.net
 사무처장: 김은정 010-3719-6896



경기룩아트에서 다양한 미술관련 정보와 전시홍보까지 한 번에

전시 콘텐츠 공유 플랫폼
경기 LOOK-ART

다양한 기기로 접속 가능한 '경기룩아트'를 방문해 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PC로도 언제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조운희
편집장	김재덕
편집위원	박수현, 안태이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제1사무실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T. 031-239-0083 제2사무실 18131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1(오산문화스포츠센터 내 4층) 회장 조운희 010-2364-6185 / 사무처장 김은정 010-3719-6896
홈페이지	http://klookart.org
디자인	디자인포레
제작처	(주)미성아트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미술관련 행사 및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을 지원합니다.



카테고리별 검색으로 쉽고 빠른 검색
[분류 ▼] 전시공모, 개인전, 기획/단체전, 문화행사, 페스티벌, 교육 기타 등 원하는 자료 검색
[연도 ▼] 행사 시기별로 검색
[지역 ▼] 경기 31개 시, 군별로 자료 검색 및 등록



경기도의 작가와 미술관 정보
[기억하고 싶은 작가 ▼]
 경기지역 대표작가들의 작품활동 소개
[미술관 탐방 ▼] 경기지역 전시공간 소개



아카이빙으로 무료전시 홍보
 개인전, 단체전, 공모전 및 시각관련행사의 정보를 업로드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빙 등록 절차



아카이빙 자료 등록안내

등록정보

개인전 및 단체전일 경우

- 전시제목은 영, 한문 있을 시에 같이 표기합니다.
 단체전일 경우 참여작가 전체명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기재합니다.
- 전시기간을 기재합니다.
- 오픈시간 전시장 개장시간을 기재합니다.
- 분류 항목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모 및 시각관련 행사일 경우

- 전시제목은 공모(행사)명 (공식명칭 표기)으로 표기합니다.
- 전시기간 공모(행사)기간을 기재합니다.
- 오픈기간 행사 및 전시개장시간을 기재합니다.
- 분류 항목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행사장 정보

- 전시행사 장소명은 한글, 영문같이 표기합니다.
- 주소를 기재 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 합니다.
- 전시 및 행사정보에는 오픈닝 시간, 공모마감 일시(초대일시) 및 휴관일 등을 기재 합니다.
- 전화 연락처를 기재 합니다.
- 입장료/관람료가 없을시 "없음"으로 기재 바랍니다.

전시내용

- 공모(행사일정)요강 관련 텍스트
- 행사주관단체 정보 / 주최, 주관, 후원 등 명기
- 단체명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홈페이지주소)
 ※공모(행사)포스터 게재 가능합니다.

작품캡션

- 작품이미지를 올리실 때 이미지아래 작품캡션을 기록해 줍니다.
 전체작품 이미지는 5컷이내로 제한합니다.
- 단체전일 경우 대표작가를 선정하여 5컷이내로 게재해 주십시오.)
- 작품에 대한 정보를 '이름, 제목, 재료, 크기 또는 길이 세로x가로x깊이 _제작년도' 순으로 기재 바랍니다.
- 작품사이즈에서 단위(cm,m,inch...)등을 꼭 기재 바랍니다.

전시서문, 작가노트, 평론

- 200자 원고지 2~5매 분량의 전시를 설명하는 글
 보도자료 형식의 글을 기재 바랍니다.
- 글쓴이 이름을 꼭 기재 바랍니다.
- 영문텍스트 게재 가능합니다.
 작품이미지와 텍스트를 적절히 혼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 부대행사가 있을 경우 간략하게 행사명, 일시, 장소 첨부하며
 작가 이력, 경력, 악력, 로고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